

염불정진 20년, 마음은 이미 극락정토

전국염불만일회 입재 20년 맞아 7월 28일 정진대회

염불정진대회에 참여한 불자들이 아미타불 칭명염불을 신명나게 하고 있다.

〈아미타경〉에 제시된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를 둔 염불, 아미타불을 지성으로 부르면 극락왕생한다는 염불수행은 단순하지만, 쉽게 측량하기 어려운 오묘함이 있다. 지극한 신심만으로도 성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염불수행은 불교 초심자부터 스님들까지 필수적인 수행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힘차게 신나게 멋있게 염불합시다'를 슬로건으로 염불정진에 매진해 온 전국염불만일회(회장 안동일)의 수행 20년은 그런 의미에서 불교 수행 대중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전국염불만일회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밀양 표충사에서 20년차 염불정진대회를 연다. 사명대사 호국성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300여 명의 전국 염불행자들이 참여해 하루에 1만번 씩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염불할 예정이다. 여기에 동산반야회 법주 법산 스님, 안동일 염불만일회 회장의 법문 및 특강이 마련돼 있으며 다도 퍼포먼스, 바라춤, 한국춤, 천수북, 사물 영남농악, 오카리나연주 등도 진행돼 염불행자들의 흥을 돋운다.

국난극복 · 교단쇄신 결사 대회
매일 1만 번 칭명염불 벌여
100일 단위 철야, 원력 지속

그동안 전국염불만일회는 전국 사찰 중 염불성지를 중심으로 염불운동를 진행해 왔다. 1998년 고성 건봉사에서 첫 염불정진대회가 실시됐으며 천봉산 대원사, 설악산 백담사, 달마산 미황사, 팔공산 은해사, 한라산 법화사, 덕숭산 수덕사, 토함산 불국사, 백담사 만해마을, 여엽산 연화사, 오대산 월정사, 치악산 구룡사와 자연학습원, 금오산 향천사, 양산 통도사 등에서도 대회가 열렸다.

2025년까지의 회향은 멀리 남아있지만 전국염불만일회 소속 염불행자들의 원력은 변함이 없다. 정진기간 동안 100일 단위로 동산불교회관 3층 법당에서 무량광 · 무량수 나무아미타불 철야정진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원력은 역사적으로 국난의 시기나 교단의 부패가 심할 때 결성돼 새 바람을 불어넣는 신앙공동체가 됐다. 신라 경덕왕 17년인 758년, 발징 스님이 고성 건봉사에서 염불만일회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1908년 건봉사 염불만일정진에 이르기까지 벽오, 만화, 금암 스님 등이 고통 받는 중생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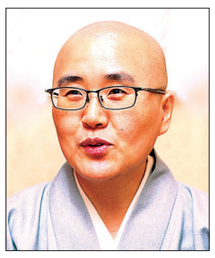
전국염불만일회는 "염불만일결사 운동은 우리나라에서만 전통적으로 실천되어 왔고, 현재에도 살아있는 실천적인 정토신앙이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함께 북을 치고 염불을 하는 그 즐거운 순간이 바로 정토"라고 강조했다.

정진대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안동일 전국염불만일회장은 "독경, 사경 등 다양한 수행이 있지만, 염불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가장 쉬우면서도 좋은 수행"이라며 "매 순간 마음을 깨끗이 하는 계기를 함께 만들자"고 동참을 당부했다. (02)732-1206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비로자나국제선원, 새 도량서 포교 날개짓

7월 14일 이전 개원 및 점안 법회… 증명 혜총 스님



재한 외국인들에게 불교를 전법해 온 비로자나국제선원이 새로운 포교 역량을 펼칠 도량을 마련해 이전한다.

조계종 비로자나국제선원(주지 자우 · 사진)은 오는 7월 14일 새로운 도량의 시작을 알리는 이전 개원 및 부처님 점안 법회를 봉행한다. 법회 증명은 조계종 前 포교원장이자 대각회 이사장인 혜총 스님이 맡는다.

'청정한 자성불의 회복과 불교의 세계화'를 이념으로 2006년 10월 설립된 비로자나국제선원은 재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불교 교리와 참선을 배울 수 있는 서울서 몇 곳 안되는 도심 사찰이었다. 또한, 어린이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교 영어 교육과 방학 시즌 불교 영어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해 불교 세계화와 계층 포교 주역으로 위치를 공고히 했다.

하지만, 환경은 열악했다. 그간 상가 건물을 임대해 포교활동을 펼쳐왔으나 사격이 확대돼 주석하는 스님부터 신도까지 불편함을 겪어왔다.

새로 이전한 도량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다. 지하 1층은 지역문화센터와 어린이 법회 공간으로 활용된다. 선무도 강좌와 어린이 담마 스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상 1층은 갤러리와 카페 까루나가 들어선다. 갤러리는 불자 예술인 협동조합 '주인공' 작가들의 전시 공간이 될 전망이다. 2층은 사무실과 공양간, 3층은 법당, 4층은 요사채로 활용된다.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은 "새로운 도량에서 업그레이드된 수행 · 포교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며 "불교 교리와 수행의 생활 속 실천을 배우는 '마음행복학교'를 준비 중이다. 1년간의 커리큘럼을 이수하면 인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이재명 시장, '기본소득 필요성'을 말하다

7월 18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54회 미래복지포럼서

'청년배당'을 통해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의 정책을 현실화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 도입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선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제54회 미래복지포럼 '기본소득, 복지제도의 새로운 대안인가'를 7월 18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연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발제자로 나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또한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각각 '기본소득의 핵심 쟁점'과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정책점 시사점'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를 예견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럼은 사전 신청 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02)723-5102 **박아름 기자**

"軍 전법에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조계종 신임군승 6월 30일 19명 임관



비구니 군승 자원 스님(사진 오른쪽 첫번째)을 비롯한 군승 대표들이 남성사에서 열린 고불식에서 전법을 서원하고 있다.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6월 30일 충북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교장 김갑수)에서 2017년 신임군승 임관식 및 고불식을 봉행했다.

올해 신임군승은 총 19명으로 4월 26일 충북 괴산 학생군사학교에 입대해 6주간 군사교육과 충북 영동 종합행정학교에서 3주간 군종장교 직무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올해 임관 군승 중에는 비구니 군승이 공군에도 파송됐다. 올해 파송 군승은 자원 스님(동국대 졸업)으로 군종교구는 2014년 창군 최초로 명법 스님을 비구니 군승으로 파송했으며, 2015년 균재 스님, 2016년 혜능 스님을 파송한 바 있다.

올해 임관 군승 중에는 육군 비중이 높았다. 육군 파송 군승은 총 12명으로 △정인 임재현 군승(27사 78연대) △보산 우성현 군승(28사단 82연대) △현법 김현욱 군승(20사단 62여단) △향담 공성현 군승(7사단 3연대) △순기 김도현 군승(수기사 26여단) △해인 석광현 군승(26사 73여단) △야허 박민형 군승(11사단 9여단) △수종 박영호 군승(5사단 35연대) △정행 정준영 군승(30사단 92여단) △청강 유대경 군승(12사단 52연대) △달원 조은석 군승(3사단 18연대) △순철 서정대 군승(23사단 58연대) 등이다.

해군은 3명으로 △상월 박태환 군승(제주기지 전대) △자홍 정수함 군승(해병 6여단) △지명 손상민 군승(해병대 교육훈련단) 등이다.

공군은 4명으로 △구산 이경태 군승(2여단) △자원 홍순영 군승(3훈비) △석림 박민구 군승(38전대) △혜림 이민우 군승(8전비) 등이다.

임관식 후 종합행정학교 법당 남성사에서 열린 고불식서 임관군승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수행자의 본 분사를 잃지 않을 것이며, 장병들의 곁에 항상 함께하겠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전법의 의지를 맹세했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장도에 오른 여러분들을 축하한다"며 "군승활동이 윤활유와 비타민의 역할로 부처님 품안에서 따뜻한 병영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전 후방 임지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임관한 군종장교는 군승 19명을 비롯해 군목사 37명, 군신부 19명으로 총 75명이 임관했다. **노덕현 기자**

행복공장, 8월 20~27일 무문관 참선 진행

1.5평에 독방에 나를 가두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참선 수행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행복공장(이사장 권용석)은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홍천수련원서 7박 8일간 '폐관 참선 프로그램-무문관(無門關)'을 연다.

무문관 프로그램의 지도는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이 맡는다. 무문관의 전체적인 일정은 1.5평의 독방에 7박 8일 동안 머물며 혼자서 참선 수행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초심자들을 위해 무문 혜개 스님의 공안 해설집 〈무문관〉에 대한 금강 스님의 방송 강의와 수행 문답 등도 함께 진행된다. 강의와 수행문답을 참석하지 않을 경우 오로지 정진도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인원은 25명으로 선착순 마감된다. 참가비는 50만 원이다. (02)6084-1016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획기적 시도!

고쳐 풀이한

법성게

그 공능功能과 쓰임새

법성게의 게송 순서를 바꾸고,
한자를 재배치한 획기적 저서!

화엄의 사상을 210자로 농축한 〈법성게〉의 본뜻을 확연히 드러내는 새로운 접근!

학송 지음/신국판/무선/320쪽/15,000원

서양의 심리학과 붓다의 가르침은 양립할 수 있는가?

붓다와 프로이트

무아의 심리학



불교와 심리학의 융합을 위한 초석!

오래되고 중요한 과제인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무아의 문제에 대한 불교와 서구심리학의 견해를 정리하였다.

마크 엡스타인 지음/윤희조 · 윤현주 옮김
국판/양장/336쪽/15,000원

미국불교

역사 및 주요 종파와 전통에 대한 성찰
BUDDHISM IN AMERICA

리처드 휴지스 시거 지음/장은화 옮김
신국판/590쪽/30,000원

활기차게 발전하고 있는
미국불교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미국 불교의 개략적인 역사, 주요 불교종파와 전통, 그리고 미국 불교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